

일제 말기 종이연극(紙芝居)의 실연(實演)과 제국의 이벤트**

문경연**

차 례

1. 들어가며
2. 조선의 종이연극 레퍼토리와 국책적 메시지
3. 종이연극의 식민지적 기획과 효과
4. 나오며

■ 국문 요약

본고는 일제 말기 ‘종이연극(紙芝居, 카미시바이)’에 주목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기획, 공연된 종이연극의 레파토리를 수집하고, 종이연극이 기획되는 방식에서 현실효과를 발생시키는 지점까지 고찰해보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시국인식, 방공방첩, 납세, 저축, 근로보국 등의 주제는 전시체제가 일본과 식민지에서 동일하게 호출되는 메시지였지만, 조선에서는 ‘지원병 모집’과 ‘국어상용’ 등의 주제가 특별 강조되는 주제였음을 확인하였다. 종이연극이 공연되고 발생시킨 미담 효과 안에서 ‘동원되면서 동원하는 자’라는 식민자의 이중적 지위에 주목했다. 식민지 조선의 종이연극은 특히 기민하게 당대의 ‘실화(實話)’를 종이연극의 소재로 활용하여 총량한 신민, 전쟁하는 신민을 주조하고자 했고, 적극적인 ‘현상모집’을 통해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81A5A8018413).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강의교수.

제국주의적 성과를 서사적으로 상상하는데 식민지 조선인들을 동원하였다. 하지만 오락을 표명한 교화적 프로파간다로서의 종이연극이 어찌하면 오락적 효과 이상의 총후미담을 생산하는데 역부족일 수 있었던 반효과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종이연극, 문화통치, 프로파간다, 미담, 실화종이연극

1. 들어가며

전시체제기에 제국 일본은 본국과 식민지의 신민(臣民)들을 총동원하여 전쟁 승리를 향해 돌진했다. 대동아공영권의 환상을 현실화 시키지 위한 제국 통치의 프로세스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전방위 영역에서 구축되었다. 그중에서도 일제가 식민지인들을 전쟁 총동원이라는 긴박하고 중요한 과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패전의 순간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구체적인 문화실천은 ‘싸우는 연극’으로서의 이동연극, ‘종이연극’이었다. 일제 말기 조선연극은 연극계의 오래된 침체 속에 국책극 ‘국민연극’을 강요받으며 연극계의 엘리트들과 직업연극인이 동원되었지만, 내선일체의 ‘진심(誠)’과 ‘황민성’을 의심받으며 ‘저열한 연극’으로 비판받았다.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낙관적 전망 하에 연극적 실천에 찬사를 받은 것은 이동연극이었다. 도회지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대중들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 민중의 최하위 말단까지 침투할 수 있었던 이동 연극으로서의 ‘종이연극(紙芝居)’은 ‘가능성의 연극’이자 ‘국민문화의 미래형(未來形)¹⁾’으로 평가받았다. 이동하는 연극부대와 종이연극의 활동 빈도, 동원 관객수는 상대적으로 아주 높았는데, 물론 선전선동 활동의 창작자와 수용자 모두 관제 시스템 하에서 동원된 인력임을 감안할

1) 金子道, 「文化消息-演劇」, 『文化朝鮮』 1943年8月號(第五卷第四號), 9面.
 神山榮三, 「列車內 紙之居」, 『文化朝鮮』 1944年11月號(第六卷第四號), 48面.

필요가 있다.

종이연극이 기획되고 공연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의미작용의 체계는 일제의 문화통치 전략 속에서 재구성되었을 것이며, 통치 권력에 의해 권위화된 메타포는 보고 느끼는 방식을 강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종이연극 연구에 물꼬를 튼 것은 한일 아동문화연구자 오오타케 키요미의 『근대 한일 아동문화와 문학 관계사 1895~1945』(청운, 2005)였다. 이 저서의 일부인 ‘전시 통제하의 식민지 아동문화’를 서술하는 장의 ‘국책선전 교육과 그림연극의 활용’이라는 소절은 ‘종이연극’을 서술하는데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어 참고할 만한 선구적인 선행연구라고 하겠다. 다만 그 서술의 내용이 전적으로 조선총독부 문서과 소속의 후루다(古田才)가 작성한 기사 「朝鮮に於ける紙芝居の實踐」(『朝鮮』, 1938.5.)의 일부 번역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²⁾ 오오타케 키요미는 식민시기 아동문화를 연구하면서 카미시바이(紙芝居)를 ‘그림연극’으로 번역하였는데, 일제 말기 조선에서는 ‘종이연극’, ‘조희연극’, ‘조희광대’, ‘가미시바이’, ‘지연극(紙演劇)’, ‘화극(畫劇)’ 등으로 혼용되어 명명되었다. ‘종이연극’이라는 용어의 근간은 일본식 조어 ‘카미시바이(かみしばい, 紙芝居)’였다.³⁾ 덧붙여 최근 몇 년 간 일본학 연구자들에 의해 종이연극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⁴⁾ 이 연구들은 일본 종이연극이 출현한 일본대중문화의 역사적

2) 오오타케 키요미는 저서에서 인용 기사의 필자 이름을 吉田才로 소개하였고 이 후 연구자들이 잘못된 이름을 재인용하는 사례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오류임을 밝혀둔다. 본 연구자가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1938년)을 통해 조선총독부 문서과 소속 직원은 ‘古田才(후루다 사이)’임을 확인하였다.

3) 일제말기 종이연극에 대한 연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는 당대 매체와 기사들에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다양한 명칭 탓이 크다고 본다.

4) 권희주, 「식민지조선의 ‘가미시바이’- 시각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선전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05호, 한국일본학회, 2015, 271~284쪽.

_____, 「교육 가미시바이(紙芝居)와 아동의 사상교육: 일본소국민문화협회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33호, 중앙대 외국학연구소, 2015, 373~394쪽.

_____, 「식민지기 경상북도 지역의 종이연극(紙芝居)연구 - 농촌진흥운동을 중심으로」, 『일본학』 46호,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8, 115~132쪽.

연구를 시작으로 제국의 소국민 육성 교육, 오락과 국책으로의 일본 종이연극을 연구하였고, 전시 체제하 식민지 조선으로 전파된 상황, 발굴한 종이연극 작품을 중심으로 식민지 지역연구와 오락을 중심으로 한 식민자의 통치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종이연극이 무엇보다 일본 제국의 국책을 선전하는 효과적인 통치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밝혀냈다. 전시오락인 종이연극이 관객을 전쟁하는 국민/신민으로 만들고자 했던 국가의 대행자로서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발굴된 작품을 중심으로 종이연극이 어떻게 구상되고 제작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가 소중한 성과이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공연된 종이연극의 레퍼토리와 실제 공연의 방대함(공연 목록과 회수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총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종이연극의 일제말기 통치문화적 효력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설득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먼저 종이연극의 제작과 공연목록, 작품 레퍼토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종이연극이라는 공연장르의 당대적 기대치와 효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실제 공연 이후 식민지인들이 내면에 어떤 효과를 창출했는지 고찰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자는 일제 말기 이동 미디어 ‘종이연극’이 조선에서 제도적으로 안착되는 과정과 종이연극의 무대 제작, 종이연극의 연출과 연기법 지침, 구연자(口演者)의 실연(實演)⁵⁾의 방식 등 일련의 공연수행 과정을 연

이대희,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의 선전매체, 종이연극(紙芝居)」, 『사회와 역사』 108호, 한국사회사학회, 2015, 119~154쪽.

5) 종이연극의 1인 연기자를 ‘구연자(口演者)’로 명명하고 공연보다는 ‘실연(實演)’이라는 표기를 쓴 것은 당대 매체의 표현을 따른 것이다. 1인 연극자가 연출과 다역의 등장인물, 해설자의 역할을 겸하는데 연기 액션보다는 목소리 연기에 중심이었기 때문에 구연자라 불렀으리라 예상한다. 또 무대와 소품 등의 연극적 장치없이 빈 공간에서 1인 구연자가 그림화면을 넘겨가면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공연보다는 실연이라는 표현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구한 바 있다.⁶⁾ 본고는 그 후속연구로 일제 말기 종이연극이 갖는 국책 미디어로서의 특징과 자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종이연극의 레퍼토리들을 정리하여 조선에서 창작, 발표, 실연된 종이연극의 주제를 구분하고, 실연자이면서 관객이었던 조선인의 ‘동원하는 자 - 동원되는 자’의 역학을 연구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1940년대 제국과 식민지의 농산어촌에서 종이연극이 연출되고 실연되었던 총체적 과정을 통해 프로파간다적 종이연극의 수행성과 그 반/효력을 살피려는 것이다.

2. 조선의 종이연극 레퍼토리와 국책적 메시지

1930년대 후반에 등장한 조선의 종이연극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수행되었던 제국의 이동하는 무대였다. 관주도의 국책극단과 민간 상업극단이 대규모의 연극인과 무대장치 등을 기차와 트럭에 싣고 전조선을 순연하며 ‘이동연극’ 활동을 했다면, 종이연극은 1인의 공연자(실연자)가 간단한 나무액자형 무대틀과 그림화면을 자전거에 싣고 가서 공연할 수 있다는 간이성과 경제성 때문에 물자난이 심각했던 태평양 전쟁 말기에 더욱 선호되는 국책 공연물이었다.⁷⁾

1937년부터 총독부가 적극 장려한 종이연극은 초반에는 내지 업자에게 종이연극을 주문·제작하는 방식을 따랐다. 그러다가 1942년쯤이 되면 조선 내에도 종이연극을 제작하는 업자들이 생겨났고 총독부 정보과에서

6) 문경연, 「Stage Performance of Travelling Theatre and Paper Theatre during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Imperial Event I : Focusing on the Transmission of Travelling Media between the Empire and the Colony」, 『The Journal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동서비교문학저널)』 Vol.47,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9, 295~330쪽.

7) 종이연극의 구연자, 무대장치, 그림화면과 대본, 공연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위의 논문을 참조할 것.

종이연극의 제작과 실행에 지도방침을 세우고 통제하기에 이른다. “조희광대는 널리 일반민중을 상대로 하는 만큼 그 역할이 매우 큰 터이므로 그 선전의 중점을 지시하여야하고 일반 민중들에게 철저히 시국을 인식”시키고자 했고 “구체적 방법으로 정보과에서 지시한 선전방침에 합치한 것을 맨들게 해가지고 제작된 각본은 본부 내 관계관이 대사한 다음 우수한 작품은 총독부 지도작품으로 인정하여 일반에게 널리 보급”⁸⁾ 시키는 과정을 따랐다. 그렇다면 우수한 종이연극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애초의 지침과 공연의 효과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이연극은 조희연극, 조희광대, 가미시바이, 지지거, 지연극(紙演劇), 화극(畫劇) 등으로 혼용되어 명명되었다. 일본어 카미시바이(紙芝居)가 수입되어 일본어 발음대로 불리기도 했고, 한자어 음으로(지지거), 순우리말로(조희연극, 조희광대, 조희극), 종이에 그린 그림을 활용한 연극이라는 의미를 넣은 이름(지연극, 화극) 등으로 제각각 불리거나 기록되면서 용어의 혼란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종이연극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본고는 각각의 명칭으로 기록 혹은 보도된 종이연극의 레퍼토리를 최대한 수집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할 수 있었다. 현재 접근가능한 식민지 조선의 각종 출판물과 미디어, 선행 연구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작성한 종이연극 레퍼토리 목록이다. 지금까지 한 두 개의 개별적인 종이연극 작품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있어서 구체적 실체를 파악하게 해주었지만, 종이연극 목록이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의 목록정리는 종이연극 연구의 초기 자료로서 의미를 가지리라고 본다. 물론 추후에 종이연극 작품의 자료가 발굴된다면 작품의 레퍼토리는 추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한다.

8) 「조희광대 指導統制」, 『매일신보』 1942.1.29.

[표 1] 1930년대 조선 내 종이연극 제작/배포/실연 목록

제목	제작/보급처	제작연도	출처	주제
『支那事變と銃後の半島』	조선총독부(관방)문서과	1937.11.	古田才 기사	시국선전
『生業報國』	조선총독부(관방)문서과	1937.12.	"	
『金少佐の奮戰』	조선총독부(관방)문서과	1937.12	"	김석원소좌 실화
미상	충주군	1938.1.	매일신보 1938.1.17.	생업보국운동 총희광대
『愛國少年』	조선총독부(관방)문서과 / 조선방공협회 화신방공반 주최	1938.1.	동아일보 1938.1.19	방공
納稅優勝旗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	1938.2.	古田才 기사	시국인식 선전, 납세관념 함양 *재무국 현상모집 당선작
光ある道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	1938.2	"	"
『樂土半島』	조선총독부 문서과	1938.3.	동아일보/ 매일신보 1938.3.30.	사변 인식
『金兄弟の忠誠』	조선총독부 정보위원회/ 경기도 각군	1938.4.	동아일보 1938.5.26.	시국 인식
銃後の國防	조선군 사령부	1938.4.	古田才 기사	
『明暗』	조선총독부 체신국	1938.5.	"	간이보험 선전
『二つの村』	조선총독부 체신국	1938.5.	"	"
『興甫伝』	조선총독부 체신국	1938.5.	"	"
『更生』	조선총독부 체신국	1938.5.	"	"
『復興の扉は開く』	조선총독부 체신국	1938.5.	"	"
『半島青年の忠誠』	조선총독부 체신국	1938.5.	"	시국 선전
『建國の二柱』	조선총독부 체신국	1938.5.	"	"
赤誠	조선총독부 체신국	1938.5.	"	"
『桃花洞』	경북농촌진흥위원회 오락교화위원회	1938.5.	"	농산어촌진흥 운동
『自力』	경북농촌진흥위원회 오락교화위원회	1938.5.	"	"
『更生』	경북농촌진흥위원회 오락교화위원회	1938.5.	"	"

『蠶の神秘』	경북농촌진흥위원회 오락교회위원회	1938.5.	"	"
『蠶の漫畫』	경북농촌진흥위원회 오락교회위원회	1938.5.	"	"
『若人よ斯くあれ』	경북농촌진흥위원회 오락교회위원회	1938.5.	"	"
『更生の道』	경북농촌진흥위원회 오락교회위원회	1938.5.	"	"
『支那事変と聖戰喇叭』	경북농촌진흥위원회 오락교회위원회	1938.5.	"	전쟁협력선전용
『婦人の力』	조선금융조합 연합회	1938.3.	"	금융조합사업 선전
『甦へるもの』	조선금융조합 연합회	1938.3.	"	"
『明るい村』	조선금융조합 연합회	1938.3.	"	"
미상 ⁹⁾	경성헌병대	1938.7	동아일보 1938.7.6.	방첩미담
미상	충청북도/저축실행조합	1938.8.	동아일보 1938.8.5.	저축보국강조주 간
미상	경상북도	1938.10	동아일보, 1938.10.11.	시국인식, 총후후원, 생활개선, 색복장려, 저축장려.
미상	개성 社會館	1939.8.	동아일보, 1939.8.12.	장고봉사건1주년 기념,진물영령 추모
榮譽の日章旗	조선총독부 문서과	1938.9.	동아일보, 1938.9.18	시국선전
朝風の合唱	충청북도	1939	매일신보 1939.1.28.	저축보급
미상	조선방공협회 화신방공반	1939.1.	동아일보 1939.1.19	방공의식 강화
반도부인의 적성	충주경찰서	1939.4.	동아일보 1939.4.9.	시국인식 강화
최창덕 통역생	충주경찰서	1939.4.	동아일보 1939.4.9.	"
勤勞의 光勞	전북군	1939.4.	매일신보 1939.4.15.	생업보국

미상	대구세무국/울산세무국	1939.5.	동아일보 1939.5.21.	납세관념 고취
미상	이화여고 창립기념 사업회	1939.6.	동아일보 1939.6.3.	방공방첩

* 출처10) :

동아일보 매일신보.

朝鮮總督府 文書課屬 古田才, 「紙芝居に依る大衆教育に就いて(一)」, 『文教の朝鮮』 154호(1938년6월), 朝鮮教育會, 90~95面.

朝鮮總督府 文書課屬 古田才, 「紙芝居に依る大衆教育に就いて(二)」, 『文教の朝鮮』 155호(1938년7월), 朝鮮教育會, 47~61面.

古田才, 「紙芝居の本質と其の宣傳性」, 『朝鮮行政』 1938년5월~6월.

朝鮮總督府 文書課 古田才, 「朝鮮に於ける時局と紙芝居」, 『警務彙報』 385~386호, 1938년5월~6월.

朝鮮總督府 文書課 古田才, 「朝鮮に於ける紙芝居の實際」, 『朝鮮』 276호, 1938년5월, 朝鮮總督府, 71~99面.

『동아일보』, 『매일신보』

[표 2] 1940년대 조선 내 종이연극 제작/배포/실연 목록

제목	제작/보급처	제작연도	출처	주제
미상	경상북도 수뇌부	1940.2.	동아일보, 1940.2.5.	절미운동강화, 춘기극복, 시국인식철 저
미상	총독부	1940.3.	매일신보 1940.3.3.	총후후원주간 조희연극 11)입선작 발표
미상	전선금융조합	1940.5.	동아일보 1940.5.30.	총후국민경제확보, 황민의식양양
미상	강화도	1940.8.	매일신보 1940.8.24.	방공종이연극 경연대회

9) 종이연극의 실연(공연) 사실을 보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작품명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그럼에도 기사를 통해 작품의 내용(주제)는 확인할 수 있을 경우 부기하였다.

10) 종이연극의 제작과 보급에 주축이 된 곳은 ‘조선총독부 문서과’로, 문서과 직원 후루다(古田才)가 집필한 장문(長文)의 ‘종이연극’ 관련 기사는 제목만 약간씩 바뀌어 1938년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무려 네 개의 총독부 기관지(<文教の朝鮮>, <朝鮮>, <警務彙報>, <朝鮮行政>)에 연재되었다. 이는 총독부가 시국선전책으로 종이연극을 적극 활용하고자 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근거라고 하겠다.

미상	종로경찰서	1941.7.	매일신보 1941.7.29.	기생대상 익찬운동 조희광대회
흠으로 돌아가다	국민총력 경성부연맹	1942.2.	매일신보 1942.2.16.	총력운동 선전
짧은 힘	"	"	"	"
소년애국반	"	"	"	"
이러서라	"	"	"	"
각오는 구든가	"	"	"	"
각오는 조흔가	춘천경찰서/학교	1942.2.	매일신보 1942.2.27.	방첩
防諜の華	춘천경찰서/학교	1942.2.	매일신보 1942.2.27.	방첩
相呼ぶ聲	조선계발협회	1942.5.	『通報』 115호, 1942年 5月,	
忠魂再び彈となる	조선계발협회	1942.5.	"	
明るい町	조선계발협회	1942.5.	"	
大東亞戰爭	조선계발협회	1942.5.	"	
半島防空「燒夷彈の 卷」	조선계발협회	1942.5.	"	
明朗愛國班	조선계발협회	1942.5.	"	시국인식 개선
美しき村	朝鮮總力紙芝居協會	1942.5.	"	
此の日此の時	朝鮮總力紙芝居協會	1942.5.	"	
夜明け前	朝鮮總力紙芝居協會	1942.5.	"	
明るい路暗るい路	朝鮮總力紙芝居協會	1942.5.	"	
葉錢物語	日本紙芝居協會 朝鮮支部	1942.5.	"	
미상	총독부 정보과	1942.6.	매일신보 1942.6.4.	정보과 조희광대현상모집
かわい孫娘	日本教育紙芝居協會/ 총독부 정보과	1942.7.	매일신보 1942.9.30.	국어사용
미상	총독부	1942.9.	매일신보 1942.9.30.	국어사용 가미시바이 입선작 발표
兄の凱旋	朝鮮啓發協會 ¹²⁾ / 조선총독부 법무국/ 吉田安治(요시다 야스치)	1943.4.	완도문화원장 김희문(1931년 생)이 연구자 위경혜에게 제공 ¹³⁾	지원병과 총동원령 지시

父歸る	조선계발협회/ 조선총독부 법무국	1943.4.	"	호적없는 조선 청년의 지원입대
미상		1943.5.	매일신보 1943.5.20.	간이보협선전 종이연극경연대회
미상	총독부	1943.6.	매일신보 1943.6.20.	적국모략격과 결전방첩 종이연극 현상모집
半島の陸鷺 (= 半島航空隊)	日本教育紙芝居協會/ 총독부 정보과	1943.8	매일신보 1943.8.18.	최명하(다케야마 다가사)대위 실화
안해와 기계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1944.10.	매일신보 1944.10.3.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현상모집 1등작
청운동사람들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1944.10.	"	" , 2등작
金江戊淑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1944.10.	"	" , 2등작
새벽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1944.10.	"	" , 3등작
반도의 이 어머니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1944.10.	"	" , 3등작
미상	永登浦署	1944.10.	매일신보 1944.10.12	농사보국
미상	총독부	1944.10.	매일신보 1944.10.28.	증산 종이연극 현상모집
미상	조선연맹/ 조선가미시바이협회	1945.1.	매일신보 1945.1.12	'명량감투' 필승의 해 *가미시바이競演대회
松井神鷺	조선연맹 紙芝居協會/개성지부	1945.2.	매일신보 1945.2.27.조간	조선인 최초 가미카제 전사자 인재웅(마쓰이히테오) 실화
미상	총독부	1945.4	매일신보 1945.4.1	저축 조희광대 당선작 발표

* 출처: 朝鮮總督府 情報課 「情報課 指導 優秀 <紙芝居>」, 『通報』 115號, 1942年 5月, 19面
『동아일보』, 『매일신보』

- 11) 신문기사의 원문표기 그대로임.
- 12) 朝鮮啓發協會(合資)는 1937년 9월에 사장 요시다 야스치(吉田安治)가 “교육 그림 연극의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경성부 대화정 1丁目 4”지에 설립한 회사이다.
- 13) 위경혜의 『호남의 극장문화사』(다할미디어, 2007) 162~163쪽에 따르면, “소화18년(1943) 3월 30일 인쇄, 소화18년 4월5일 발행”, “저작권 조선총독부 법무국 민사과”로 되어 있다. 인쇄는 일본에서 했으나 발행소는 경성의 조선계발협회로 표기 되어 있고, 복제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표기해두었다.

이상 조선의 종이연극 레퍼토리를 통해 확인한 것은 먼저 일본 본토와 동일한 국책적 메시지의 작품들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1930년대와 40년대 모두 전시기의 시국인식 강화, 저축 보급, 간이보험 선전, 납세의무 교육, 총후 지원 독려, 방공방첩 사상 고취 등의 주제가 일본과 조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통치에 있어 제국의 동화주의의 이념은 식민 종주국인 일본과 식민지인 조선에서 차별 없는 일치와 평등을 부르짖었지만, 실제 현실은 차별과 불평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획득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통치 목표 중의 하나는 전시에 탄환이 되어줄 인적 자원(지원병)의 확보였다. 실제로 종이연극의 레퍼토리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40년대가 되면서 조선의 식민지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선인들을 타깃으로 한 ‘지원병’ 관련 주제와 ‘국어사용’이라는 주제가 종이연극 레퍼토리에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조선에서 종이연극이 국책선전물로 기대치를 갱신하는 계기가 확인되는데, 그것은 조선총력가미시바이협회(朝鮮總力紙芝居協會)와 일본종이연극협회 조선지부(日本紙芝居協會 朝鮮支部)가 설립되는 1942년을 거쳐, ‘조선화극유한회사(朝鮮畫劇有限會社)’가 설치되고 ‘조선종이연극협회(朝鮮紙芝居協會)’가 조직되는 1943년이라는 시점이다. 협회가 만들어지고 조직적인 후원과 장려책들이 준비되면서, 종이연극 현상공모와 경연대회의 회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이연극 현상공모와 종이연극경연대회는 기본적으로 관제동원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표면적으로는 피식민자의 자발적 동참을 가시화하는 전략이 되기도 했다.

“필승의 신념을 붓도두고 총후봉공의 결의를 한층 굳게하기 위한 선전 계발의 중대책무를 완수하고 있는 가미시바이도 결전단계를 마치야 한층 강력하게 통제하고자 현재의 일본교육가미시바이협회 조선지부, 조선총력가미시바이협회와 및 조선계발가미시바이협회가 지난 四月 一일 합동하여 조선화극유한회사(자본금 六만五천원)를 설치하고 가미시바이

제작판매를 통일하였다. 이와 함께 다시 그것의 기술보급과 기획을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조선가미시바이협회를 近來 창립하여 회장에는 국민총력 조선연맹의 쓰다(津田) 선전부장이 취임하고 각 역원에는 본부와 조선연맹의 관계과장과 및 민간의 문화관계 유력자가 취임하여 가미시바이를 통하여 총후문화계 발전의 한층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키로 되었다.”¹⁴⁾

“문화공작의 첨병으로서 활동무대에 오른 가미시바이는 총력연맹의 협력과 지도로서 조선가미시바이협회의 탄생을 보아.....가미시바이는 농산촌에 건전오락을 제공하고 총력운동 전개와 계발선전의 제1선에 등장하게 된 것인데, 주로 연구조사와 보급, 제작 알선, 출장실연, 순회강연, 각 본 모집, 기타 강연 등을 개최하고 기술적으로 발전을 꾀하며 전람회 등을 열어 이종의 연극보급에 힘쓰기로 되었다.”¹⁵⁾

이는 전쟁 말기에 종이연극의 문화협력적 임무가 가중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종이연극에 대한 총독부의 통제가 더욱 치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이연극은 제작의 용이성, 전시상황과 시국의 변화를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그림각본 창작, 실연과 보급의 신속성, 농산어촌의 오지까지 침투할 수 있는 1인 구연자의 기동성 등을 발휘하면 전시기 최고의 이동하는 선전술이 되었을 것이다. 1943년이 되면 종이연극의 제작과 판매를 ‘조선화극유한회사’가 독점하고, 종이연극과 관련된 기술 보급과 기획, 제작 알선과 출장 실연, 보급을 ‘조선가미시바이협회(朝鮮紙芝居協會)’가 지휘함으로써 종이연극은 다시 한 번 프로파간다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피기로 한다.

14) 「가미시바이統合」, 『매일신보』 1943.7.8.

15) 「『가미시바이』再出發 總力運動에 발맞추어」, 『매일신보』 1943.8.15.

3. 종이연극의 식민지적 기획과 효과

황민인식 양양에 협력하기 위해 일제의 각 산하 기관들은 “잡지, 신문, 화문지(和文誌) 등을 발행하고 포스터, 뼈라, 판프리트 등의 인쇄물 발행” 하면서 선전에 주력했고, “매년 관람자 백만인”으로 추정하는 450개소 미상에 달하는 순회 영사반 활동, 강연, 화극(畫劇-종이연극)¹⁶⁾을 동원하여 충량한 신민 만들기를 시도했다. 그 중에서 조선의 종이연극 각본은 총독부와 제국의 각종 하부 기관들이 동원된 것은 물론이고, 현상모집을 통해 피식민자의 협력을 추동해냈다. 총독부 정보과나 경성일보에서 ‘전시기의 시국인식’ 강화, ‘징병제’ 선전과 ‘국어상용’ 등의 식민지의 협력적 국책을 주제로 걸고 창작이나 실화(實話)소재 등을 바탕으로 한 종이연극 현상모집을 실시했다.¹⁷⁾ 일제는 종이연극각본 현상공모를 통해 피식민자의 자발적 협력을 끌어내고 제국주의적 성과를 서사적으로 주조하는 틀로 활용코자 했다.

1938년 총독부 농림국에서 농산어촌의 부업과 생업 소득을 영세저축으로 권유하고 소비절약할 수 있는 저축 사례를 알리려고 ‘실행 체험담’을 모집한 바 있다. 이 원고들을 책자로 만들고 화극(畫劇-종이연극)으로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지도체험담과 실행담으로 구분된 이 공모에서 5편이 당선되었고 제작되었다.¹⁸⁾ 현상모집에 당선된 작품들은 후방에서 춘궁기를 버티기 위해 절미운동을 강화하고, 식량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실연되었는데, 20분 남짓의 종이연극은 단독으로 공연되기보다 다양한 선전선동 행사인 ‘좌담회’, ‘영화회’와 함께 실시되었다.¹⁹⁾ 특히 일제는 ‘실화’ 소재의 종이연극 제작에 공을 들였는데, 정서적

16) 「銚後國民經濟의 確保安定을 期하라」, 『동아일보』 1940.5.30.

17) 「國語常用가미시바이 入選作品發表」, 『매일신보』 1942.9.30.
「紙芝居の脚本」, 『京城日報』 1944.8.30.

18) 「農山漁村의 當選體驗談」, 『동아일보』 1938.11.03.

감화력을 추동하는데 실화야 말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소재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종이연극은 ‘실화 가미시바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명명을 달고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 때 실화는 르포르타주의 성격보다 시극에 적극 동참하며 전시동원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준 실존인물의 에피소드를 담은 소재극이었다. 애국헌금이나 자발적 국방금을 낸 평범한 시골촌부나 어린 학생부터 김석원 소좌, 최명하(다케시마 다카시)대위, 카미카제 전사자 인재웅(마쓰이 히데오), 그리고 이름없는 지원입대자 등 실존하는 실화의 주인공이 기민하게 종이연극의 주인공으로 채택되어 제작되었다.

‘실화 가미시바이’가 조선에서 자주 활용된 종이연극 기획의 방식이었다면, 일제의 또 다른 식민지 ‘대만’에서 ‘뉴스 가미시바이’가 제작된 것은 참조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만에서는 일본화극주식회사 대리점(日本畫劇株式會社代理店)과 대만교육화극협회(臺灣教育畫劇協會)가 설립된 이후, 1941년에 대만가미시바이협회(臺灣紙芝居協會)가 결성되었다. 특히 일본교육가미시바이협회 대만지부가 가미시바이 ‘각본’과 ‘이동식 무대’를 대행판매하면서 종이연극의 확산을 도왔다. 이 협회는 대만 내 가미시바이 각본 현상공모는 물론 대규모 극장에서 가미시바이 공연을 매년 개최하면서 ‘가미시바이운동’을 이끌었다. 또한 ‘가미시바이 연출’과 관련된 실연(實演) 매뉴얼 관련 서적들을 출간하여 연행자 교육에도 힘을 썼다. 특히 대만의 경우는 ‘뉴스 가미시바이’가 특기할 만한데, 조선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대만의 ‘뉴스 가미시바이’(皇民奉公會宣傳部 제작)라는 개별 장르는 대만과 조선이 종이연극을 활용한 방식에서 식민지의 특수성이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²⁰⁾ 마치 전시 상황을 보고하는 뉴스영화나 전시 기록뉴스의 종이연극 버전으로, 종이연극의 소재를 뉴스에서 따온 것이었다.

다시 조선의 ‘실화 가미시바이’로 돌아오자면, 실화 소재 종이연극이

19) 「災民의 實情을 詳細히 視察 春窮期克服講究」, 『동아일보』 1940.2.5.

20) 大澤貞吉, 『紙芝居の手引-皇民奉公叢書』第十輯, 皇民奉公會中央本部, 1942.

조선에 등장한 것은 종이연극의 출현의 비교적 초창기인 1937년이다. 총독부가 제작한 최초의 종이연극 <지나사변과 총후의 반도>이 “전선 각도 부근에 배포하여 시국 인식상 상당한 성적을 내어엿슴”을 확인하고, 연이어 제작한 종이연극이 “반도 武臣의 전형인 김석원(金錫源)²¹⁾소좌의 어렸을때부터의 경력과 그 위인 분전의 상황 등을 집목한 『김소좌』”²²⁾였다. 정확한 작품명은 『金少佐の奮戰』이다. 김석원 소좌는 1915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27기로 졸업하고 1917년에 보병 소위로 임관했다. 1931년 만주사변 당시 혁혁한 전공을 올렸고 1937년 중일전쟁에 출전하며 훈장을 수여한 인물이다. 중일전쟁 이후 시국인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실제 인물인 김석원 소좌의 이력이 종이연극의 소재로 적극 호출된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화가 종이연극 소재로 활용된 사례를 해방 직전까지 수시로 발견할 수 있다.

“경성부에서는 이번에 징병제취지를 보급하기 위하여 일본교육조희광대협회(日本教育紙芝居協會) 작품 『반도의 항공대』라는 조희광대로 부내 공사립 三十一개의 청년특별연성소 생도들에게 보이며 항공열을 붓도두어 주기로 되었다. 이 조희광대의 내용은 남방전선 스마트라에서 명예의 전사를 한 경북 선산군(善山君) 출신 다계야마 항공대위의 분전상황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²³⁾

종이연극 <松井神鷲>은 조선연맹종이연극협회(朝鮮聯盟紙芝居協會)가 제작한 작품으로 조선인 최초 가미카제 전사자 인재웅(마쓰이 히데오)

21) 김석원(1893~1978)은 일제 말기에는 학병으로 참전할 것을 권유하는 강연회에 이응준 등과 함께 참가했다. 해방 당시에는 대좌 계급으로 평양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해방 이후 성남고등학교 교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김석원은 친일 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 모두 포함되었다. - 송건호 외 지음,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2002, 240쪽 참조.

22) 「『조희演劇』으로 『데뷰』할 半島武人 金錫源氏 生涯, 『매일신보』 1937.11.26.

23) 「畫劇 『半島航空隊』로 靑年特別鍊成所巡廻, 『매일신보』 1943.8.18.

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²⁴⁾ 당시 조선인 지원병 마쓰이 히데오의 전사 사진은 조선의 모든 신문과 매체가 연일 보도했다. 서정주는 <마쓰이 오장 송가>라는 친일시를 써서 『매일신보』(1944.12.9)에 발표했고, 신문은 유가족 위로금 모금 및 훈장과 포상금 지급의 과정까지를 보도하는 방식으로 조선인 카미가제 병사의 자폭 죽음을 미화했다.

종이연극은 경성부를 비롯한 각 부(府)와 군청 등의 행정단위에서 구입하여 정(町)과 면(面), 도(島)등에 보급하였고, 실연자(實演者, 口演者)로 교사나 군청 직원²⁵⁾ 등을 활용했다. 종이연극의 관객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지역 전 계층의 조선인이 상정되었고, 아동 대상의 종이연극을 구연할 때에도 “아동을 통하여 일반 민중에게 선전보급”²⁶⁾하겠다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종이연극의 계몽적 내용을 전달하게끔 하는 선전효과의 확산을 의도했다. 종이연극 실연(實演) 장소는 골목과 같은 최소 단위부터 공원이나 장터, 강연회까지 말 그대로 민중이 집합하는 모든 장소가 해당되었다. 다만 경찰서나 청년특별연성소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진 기관에서 종이연극을 실연할 때는 수용자의 시국임무에 합당한 ‘방공방첩’이나 ‘징병미담’ 등과 관련한 주제의 종이연극을 선택했다.²⁷⁾

특히 총독부는 조선 전체 1400여개에 달하는 ‘장터’가 물건을 사고파는 기관일 뿐 아니라 “일종의 사교기관”이므로 “이 기회를 리용하여 시국관계의 연극, 활동사진강연회, 가미시바이(중히연극) 등을 하여 일반 농

24) 「松井神鷲의 조희광대會」, 『매일신보』 1945.2.27.

25) “저축사상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조희광대(紙芝居) 『조풍의합창』(朝風合唱)을 일조식을 도내 각군에 배부하여 비치하게 하고 금후 각종 회의와 군청 직원이 각면 학교 부락 갖든 곳에 출장할때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실연회를 개최하여 일반의 저축사상을 고조시키기로” - 「조희광대配付 忠北의 貯蓄普及策」, 『매일신보』 1939.1.28.
 “춘천 경찰서에서는 각 학교를 통해서 조희광대를 실연하고 있는 중이다. ...또 高等主任 이하 係員들이 각학교로 순연하며 『각오는 조흔가』, 『방첩의 華』라는 제하의 조희광대를 실연” - 「조희광대實演」, 『매일신보』 1942.2.27.

26) 「『조희광대』로 納稅報國宣傳」, 『매일신보』 1938.6.7.

27) 「防諜조희광대 仁川署서 巡演」, 『매일신보』 1939.3.29.

촌대중에게 널리 시국인식을 철저히 하여 충후국민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게 할” 계획을 일제 말기 내내 실행했다.

“총독부에서는 더욱 장대화하여가는 현하 전시체제하에 있어 일반 국민에게 시국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져 전조선 一천四백여의 장(市田)을 리용하여 시국인식 철저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방금 구체안을 강구하고 있다한다. 장은 어데서든지 한달에 대개 여섯 번식은 서는데 **장날은** 지방농촌에 잇서서는 경제적으로 보아 물건을 팔고사고하는 중요한 기관일뿐 아니라 **일종의 사교기관**이라고 할 수도 잇서 농촌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모이는것 임으로 이기회를 리용하여 시국관계의 연극, 활동사 진강연회, 가미시바이(중히연극) 등을 하여 일반 농촌대중에게 널리 시국인식을 철저히 하여 충후국민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게 할 터이라한다.”²⁸⁾

이러한 종이연극에의 동참은 각 부와 군청, 읍면동 등의 행정단위 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현장에서도 이루어졌다. 이화여고보에서는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학생들의 종이연극 실연을 실시했다.



[사진] 「梨花高女 防共防諜展」, 『동아일보』 1939.6.3.

28) 「全鮮의『장날』을 利用 時局의 認識強調 忠後國民의 任務를 다하도록 總督府에서 具體案考究中」, 『매일신보』 1938.5.19.

종이연극의 통상적인 공연방식대로 1인의 구연자(이화여고보 학생)가 비교적 작은 액자무대 옆에 서서 종이연극 구연하고 있고 학생관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종이연극의 성공은 구연자의 역량과 연극 화면(그림) 및 대본의 흥미성에 달려있었다. 과연 국책메세지의 전달력과 감화력이 선전하는 만큼의 성과를 냈을지 의문이지만, 조선의 각지에서 실연된 ‘작은 공연’ 종이연극을 관람한 조선인들의 감격 후기와 미담은 제국통치자에게 종이연극이 ‘성적이 양호’하며 ‘총후 연극의 미래형’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던 것 같다.

“경기도 가평공립보통학교 3학년 최00군(10세)은 반에서도 가장 어리고 건강도 비교적 좋지 않은 아이지만, 지난번 군청 직원이 아동에게 보여준 종이연극 <지나사변과 총후의 반도>에 감격하여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는 가지치기를 의연히 감행하였다. 부친 최00씨(우편소 직원)는 아들의 의외의 행동에 감읍(感泣)하여 애국심의 맹아를 키우고자 자신이 얼른 이를 매수하였다. 최군도 점차 분발하여 매주 일요일 추위 속에서 가지를 치러 산으로 가서 모은 30전을 학교에 제출하여 교원 일동도 크게 감격하고 있다.”²⁹⁾

또 “경북 선산군 고아면 신촌동 김경렬(金景烈) 녀사는 청춘과부로 잡화상을 하여 근근히 생활을 하여 오는 중 十二月 七日 시국에 대한 가미시바이(紙芝居)를 보고 황군위력에 감격하여 국방금으로 일금 삼원을 고아면장에게 의탁하였다는데 이 소문을 들은 일반 인사들은 이 여사 성의에 대단히 감격하고 있다”³⁰⁾는 자발적으로 국방헌금을 낸 조선인 미담의 탄생이었다. 기사에서 총후미담을 의도적으로 선전하면서 ‘동원되는 피식

29) 深澤部隊本部, 支『那事變銃後美談 朝鮮半島國民赤誠』, 軍士記錄編纂會 京城支局, 1939.

후자카와 부대본부, 김효순, 송혜경 역, 『중일 전쟁과 식민지 조선의 전쟁 동원 - 지나 사변 총후미담 조선반도 국민적성』, 역락, 2016, 160쪽에서 재인용.

30) 「가미시바이보고 感激 國防獻金한 女性: 行商女の 奇特的 純情」, 『매일신보』 1937.12.29.

민자'를 다시 '동원하는' 장치로 활용하려는 제국의 통치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짧은 기사에 '청춘과부'의 '근근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황군을 위해 '국방헌금'을 낸 피식민자의 감동사연을 직조한 미담 서사의 전형을 볼 수 있다. 동시에 전쟁 시기 종이연극이 구체적으로 목표했던 바를 선명하게 투영한 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미담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선전목적을 위해 수집되었고 일정 부분 가공되었다.

총후의 다양한 미담은 여러 미디어를 통해 생산, 유통되었고 <미담집>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남아 한번 세상에 태어남에 그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장부 일생에 떳떳한 일이다”라는 굳은 결심과 조희연극(紙芝居)에서 고 이상등병과 최통역의 활동한데 감격한 바 있어 단지를 하여 그 피로 지원병에 써달라는 지원이 지난 십팔일 강화경찰서에 드러왔다. 혈서로 지원병에 지원한 그는 군내 하점면 망월리 이학우씨의 장남으로 금년 십구세된 소년이다. 혈서는 손의 피를 뽑아 붓으로 쓴것인바 피가 모자라 물을 타서 쓴 흔적이 있는바 일반을 감격시키고 있다고 한다.”³¹⁾

미담의 핵심은 역시 동원되는자, 피식민자의 자발성 강조에 있다. 더욱이 미담 주인공의 이름과 주소,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사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그로 인해 미담 행적의 현실-효과(reality effect)를 확산시키는데 있었다.

“총후에 철저한 황국신민의 정신을 양양시키는 전주곡으로 전남에서는 260만의 도민 지도를 위해 순회 영화대를 조직하고 전력을 쏟고 있는데, 순박한 농산어촌의 사람들에게는 요령이 좋은 종이연극 쪽이 근대적인 영화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좋다는 것에 착목해서 총력과(總力課)에서는 도내의 각부군도(各府郡島)에 가미시바이부대(紙芝居部隊)를 편성시키고(중략) 산간어촌의 부락민들에게 아름다운 화면의 색

31) 「血書로 志願兵 懇願- 江華 李少年의 意氣」, 『동아일보』 1940.3.20.

치와 매력이 풍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발지도(啓發指導)할 계획을 세웠다. 광산군에서는 이 계획에 부응해서 일본종이연극협회(日本紙芝居協會)와 경성의 조선계몽회(朝鮮啓蒙會)에서 60조의 대본을 구입하고 12대의 무대를 一邑十一面に 준비시켜서 학교는 물론 애국반상회, 시장, 길거리 등 다양한 기회를 이용해서 가미시바이 순연(行脚)을 시도하고 국어의 상용철자와 동시에 生擴完隊, 저축보국의 분기에 대의를 두고 있다.(연구자 번역)³²⁾

위의 기사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260만 도민을 지도하기 위해 ‘도내의 각부군도(各府郡島)에 가미시바이부대(紙芝居部隊)를 편성’했고, 광산군에서는 ‘60조의 대본을 구입하고 12대의 무대를 一邑十一面に 준비시켜서 학교는 물론 애국반상회, 시장, 길거리 등 다양한 기회를 이용해서 가미시바이 순연(行脚)’을 실시했다고 한다. 종이연극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나, 근대적 공연홍행물에 노출된 적이 없는 벽지의 순박한 농어민에게 더 쉽고 부담없이 침투할 수 있는 선전미디어라는 점에서 선호되었다. 특히 인간미디어가 총후의 일상까지 침투하는 종이연극의 문화정치는 일본 제국의 총량한 신민이자 스스로를 전쟁하는 신민으로 재정위하는 미시적인 생활정치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전쟁 말기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최소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선전물로 활용되었다.

5. 나오며

총독부가 소설가 김동인에게 국어(일본어)를 모르는 대다수 조선민중을 대상으로 “그대네의 職業上 가미시바이(かみしばい) 가튼 것을 제작하면 어떠냐 매우 效果的”³³⁾이지 않겠냐고 권유한 것은 총독부가 종이연극

32) 「映畫より越して優れて紙芝居」, 『京城日報』 1942.11.3.

33) 金東仁, 「作品과 題材問題」, 『매일신보』 1941.3.26.

에 얼마나 많은 기대와 지원을 했는지 추측케 하는 일화이다. 1945년이 되면서 일본의 전세(戰勢)는 더욱 불리해졌고, “昭和20년(1945) 정보국에 서는 명량한 기분으로 과함히 싸워서 적(敵) 미영(美英)을 격멸해 버리자는 ‘『명량감투(明朗敢鬪)』’의 해로 정하였다.”³⁴⁾

“필승 20년의 표어 “명량감투 필승에 돌진하자”는 국민적 기운을 촉성하기 위하여 국민총력 조선 경기도 경성부 三연맹과 朝鮮紙芝居協會의 공동주최로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십일간 부내 정자옥백화점 2층과 5층에서 명량감투 가미시바이 전람회를 개최하고 …… 장병들의 작품 <명량감투 가미시바이>를 전시하며 5층에서는 가미시바이 경연을 개최하기로 하였다.”³⁵⁾

1945년 총독부가 발표한 신년 표어가 “웃는 얼굴로 명량감투”³⁶⁾는,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바닥난 상태에서 비현실적 우격다짐으로 밀어부친 패변에 다름아니었다. 하지만 전쟁 말기까지 대동아공영권의 환상과 제국의 선전선동 정책에 종이연극이 부응 했으니, 장병들의 명량감투 종이연극 경연이 실시된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동성과 간편성, 기민함과 순발력을 무기로 식민지 지역의 최말단까지 침투했던 종이연극의 효과는 해방 이후에도 상당기간 목적과 방향을 달리하며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에도 경상북도 교육화극협회(教育畫劇協會)가 지역민의 계몽을 목적으로 종이연극 순회공연을 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³⁷⁾

한편 식민의 역사를 통과했던 사람들의 종이연극에 대한 회고에서 일제말기 선전선동 공연에 대한 거부감보다 오락 장르로서의 노스텔지어적

34) 「明朗敢鬪의 새결심, 철석같은 필승의 정신을 갖자」, 『매일신보』 1945.1.1.

35) 「명량감투 紙芝居 競演」, 『매일신보』 1945.1.12.

36) 「웃는 얼굴로 명량감투」, 『매일신보』 1945.1.10.

37) 「畫劇啓蒙班을 巡廻」, 『嶺南日報」, 1949.4.26.

감회가 발견되는 것은, 프로파간다 종이연극의 효력에 대해 새삼스럽게 다시 의문을 던지게 한다. 종이연극이라는 이제는 사라진 공연 장르의 영향력을 어디서 찾아야할지 고심할 수 밖에 없다. 김열규는 “일본말로 '가미시바이'라고 하던 만화로 된 동화를 목사가 연사(演士)가 되어서 읽어 주는 재미와 그때마다 얻어먹던 캔디 맛에 홀려서 개근을 했다”는 회고를 하면서 “어린 시절 (자신의) 공부에 그림연극으로 들려준 이야기, 가미시바이를 들으며 시작”되었다고 한다.³⁸⁾ 종이연극 공연을 들으며 상상력을 키우고 생각을 키웠던 것이 공부와 사고의 시작이었다는 개인적인 공부 이력을 술회한 것이다. 한편 1933년생 극작가 신봉승은,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하니 1944~45년경으로 추측되는데, “당시 일어로 ‘가미시바이(紙芝居)’라고 하는 것인데, 스케치북에 7~8장의 그림을 그리고 대사나 해설을 붙여서 한편의 스토리로 엮는” 종이연극을 그려서 친구들의 인기를 끌었다는 구술을 한 적이 있다.³⁹⁾

이것은 일본 제국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종이연극 공연이 반효과를 증명하는 기억이라할 수 있다. 프로파간다로서의 종이연극이 제국의 이데올로기적 의미작용을 전달하는 비유로 기능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을 상상하게 하는 서사장치이자 퍼포먼스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조선에서 종이연극이 시작된 출생의 이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국민이라는 허구적 정체성을 투사하고 공통감각을 훈련시키는 프로파간다 예술 안에서, 제국으로 환원불가능한 지점이 무수히 존재했을 가능성도 예상 가능하다. 종이연극이 오락을 표명한 교화 장치였지만, 어쩌면 오락적 효과 이상의 충후미담을 생산하는데는 역부족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제국의 그 어떤 부대도 보급선을 연장시킬 수 없는 원격지가 바로 우발적

38) 김열규, 『공부』, 2011. 비아북, 8쪽.

「김열규교수의 ‘내 부산, 내 옛 동지’⑤-부용동, 영생유치원과 향서교회에서」, 『부산일보』, 2011.6.3.

39) https://blog.naver.com/ddmpark4_st/220098796807 극작가 신봉승 인터뷰

효과를 발생시키는 피식민자의 내면이었기 때문이다. 일제 말기 문화연구의 최종 지점은 바로 환원불가능의 지점을 밝히고 프로파간다의 우연적 파열의 지점을 드러내는 것에 도달할 때, 연구의 총합적 의미가 도출될 것이라고 본다.

■ 참고 문헌

<1차 자료>

<京城日報>, <동아일보>, <每日申報>, <文化朝鮮>, <文教の朝鮮>, <三千里>, <嶺南日報>, <朝鮮>, <通報>.

<논문 및 저서>

권희주, 「식민지조선의 ‘가미시바이’-시각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선전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05호, 한국일본학회, 2015, 271~284쪽.

_____, 「교육 가미시바이(紙芝居)와 아동의 사상교육 : 일본소국민문화협회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33호, 중앙대 외국학연구소, 2015, 373~394쪽.

_____, 「식민지기 경상북도 지역의 종이연극(紙芝居)연구 - 농촌진흥운동을 중심으로」, 『일본학』 46호,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2018, 115~132쪽.

문경연, 「Stage Performance of Travelling Theatre and Paper Theatre during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Imperial Event I : Focusing on the Transmission of Travelling Media between the Empire and the Colony」, 『The Journal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동서비교문학저널)』 vol.47, 2019,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95~330쪽

문제안 외, 『8.15의 기억』, 한길사, 2005, 430쪽.

송건호 외 지음,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2002, 668쪽.

오오타케 키요미, 『근대 한일 아동문화와 문학 관계사 1895~1945』, 청운, 2005, 253쪽.

위경혜, 『호남의 극장문화사』, 서울: 다할미디어, 2008, 352쪽.

이대화,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의 선전매체, 종이연극(紙芝居)」, 『사회와 역사』 108호, 한국사회사학회, 2015, 119~154쪽.

홍선영, 「전시기 이동연극과 ‘국민문화’운동 : 일본이동연극연맹(1941.6~1945.8)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45, 한국일본어문학회, 2010. 389~409쪽.

후자카와 부대본부, 김효순, 송혜경 역, 『중일 전쟁과 식민지 조선의 전쟁 동란-지나 사변 총후미담 조선반도 국민적성』, 역락, 2016, 323쪽.

新垣夢乃, 「植民地台の紙芝居活動をみつめる三者の視線について—植民地紙芝居究の射程」, 『日本學報』, 112, 2017, 235~256面.

- 今井よね, 『紙芝居の実際』, 基督教出版社, 1934.
大澤貞吉, 『紙芝居の手引-皇民奉公叢書』第十輯, 皇民奉公會中央本部, 1942.
伊藤喜朔, 『移動演劇十講』, 健文社, 1943.
佐木秋夫, 『紙芝居』, 藝術學院出版部, 1943.
大笹吉雄, 『日本現代演劇史昭和戰中篇』, 白水社, 1994.
加太こうじ, 『紙芝居昭和史』, 岩波書店, 2004.
姜垓, 『紙芝居とく不気味なものたちの近代』, 青弓社, 2007.

■ Abstract

Stage Performance of Paper Theatre during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Imperial Event II

Moon, KyoungYeon
Dongguk Univ.

This paper aims to focus on and trace the production and stage performance of paper theatre (*J. kamishibai*) during the occupation of Korea by Japanese empire and shed light on its real effects. As the World War II drew to a close, the role of paper theatre as a cultural propaganda tool was reinforced, which mad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take more careful and closer control over paper theatre. This, in turn, serves as an evidence which attests to the status of paper theatre as part of the empire's ruling strategy. The moving stories of the colonists who were so moved that they willingly made national defense contribution after watching the paper theatre would have made the imperial rulers expect an even stronger impact from the paper theatre.

This paper includes as its empirical data a substantial amount of Korean paper theatre repertoires during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which I have secured as much as possible. In so doing, I was able to determine that messages calling for awareness of the current situation, anti-espionage, tax payment, or savings were the recurring themes in both the empire and the colony alike during the wartime, while the “military recruitment” and “everyday use of national language [i.e. Japanese]” were the ones that were particularly underscored in Korean peninsula. “Descriptions” on the back of paper theatre scripts demonstrate the ambivalent position of the paper theatre performers as “the recruited and the recruiter.” The cases of reportage- or true story-based paper theatre in Korea are the cases, in which

colonists were actively mobilized in imagining the imperial achievement in narratives through the prize competitions for new paper theatre scripts.

Key Words : paper theatre (*kamishibai*), cultural rule, propaganda, moving stories, true story-based paper theatre